

잘 씌어진 '보도자료'가 아쉽다

책을 만드는 쪽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책을 널리 소개하는 일과 관련해 가장 신경을 쓰는 부분중의 하나가 이른바 '지면을 타는' 일이다. 서너줄의 短信 기사를 비롯해 서평이나 저자인터뷰 등 어떤 형태로든 신문이나 잡지의 지면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출판사들의 공통된 기대이다.

하지만 그러한 기대가 언제나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출판정보를 처리하는 이들, 곧 기자들에 의해 그 기대는 제한된 지면 안에서 선택적으로 충족된다. 그리고 대개의 경우 그 선택은 다분히 자의적일 수밖에 없고, 따라서 선택에서 소외당한 입장에서 보자면 불공정한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부터 문제는 발생한다. 별로 대단치도 않아보이는 다른 출판사의 책은 대문짝만하게 소개되는데 심혈을 기울여 만든 우리 출판사 책은 왜 한줄도 취급되지 않느냐, 과연 선택의 기준이란 있는 것인가, 책소개에도 '안면'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등의 시비가 인다.

이는 물론 충분히 귀담아들을 만한 시비들이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해서 출판정보를 선택하고 소개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출판사들이 자신의 출판물이 선택당하고 소개되기 위해 얼마만큼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보도자료'의 작성 문제이다. 현실적으로 모든 책을 꼼꼼히 챙겨 읽을 수 없는 기자들의 입장에서 잘 씌어진 보도자료는 기사작성에 큰 도움이 된다. 보도자료를 첨부한 책은 그렇지 않은 책보다 훨씬 더 자주 선택된다. 보도자료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문과 해설만이라도 잘 씌어져 있다면 이 역시 그렇지 않은 책보다 더 자주 선택될 수 있다.

말하자면 기자들을 "편하게 해 주라"는 것인데, 이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책 자체로서 이외엔 그 책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책을 제대로 소개하기란 사실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보도자료는 책을 알리는 가장 손쉽고도 유용한 수단일 수 있다. 최상급의 수식어를 충동원한 무슨 광고문안 같은 보도자료는 물론 예외가 되겠지만.

-강철주 차장

출판저널

통권 제 54호 / 1990년 1월 20일 발행

발행인—鄭鐵肅
편집인—李起雄
인쇄인—李壹秀
편집주간—李勝羽
편집차장—康鐵柱
기자—潘慶煥 權正子 李權雨 洪賢淑
디자인—尹貞子
사진—全惠敬

업무차장—尹東鎬
업무·광고—崔允源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재) 한국출판고
인쇄처—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광일사전산사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편집서평위원

康賢斗 康泓彬 權德周 權寧珉
權五聖 金炳翼 金聖坤 金容雲
金禹昌 金仁會 金治沐 盧命完
潘星完 邊衡尹 徐洸善 徐淵昊
成完慶 宋相庸 愼鍾煥 安秉永
安輝潯 吳光沐 劉載天 陸明心
尹錫範 李康洙 李康淑 李瓊薰
李光周 李萬烈 李明賢 李相日
李元靉 李重漢 李姬載 張會翼
鄭用琢 鄭雲暎 鄭鎮弘 鄭丙圭
曹大鉉 趙玉羅 陳德奎 車河淳
崔成眞 崔元植 崔載賢 崔鐘庫
韓相震 韓勝憲 (가나다 순)

「출판저널」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0,000원(10호분) 또는 18,000원(20호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째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예약은 10호분 또는 20호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붙임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람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기하여 본지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독서퀴즈

다음 문제의 정답을 90년2월10일까지 「출판저널」 독서퀴즈 담당자 앞(110-190·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회관)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때는 문제가 실린 「출판저널」 호수를 명기하시고, 우편엽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출판저널」 제56호(90년2월20일자)에 발표됩니다. 정답을 맞힌 독자 중 5명을 추첨, (주)시사영어사에서 펴낸 「엘리트英韓辭典」(정가 10,000원)을 상품으로 드립니다.

이번도 독서퀴즈는 한국 및 중국의 고전, 역사 등과 관련된 낱말짜맞추기로 출제했습니다. 다음의 가로 및 세로 열쇠를 읽고 빈칸에 맞는 인명이나 작품명 등을 써넣어 주십시오.

가로열쇠

① 술을 의인화한 임춘의 가전소설 ③ 조선 영조때의 歌人. 호는 노가재 ⑤ 함흥차사. 태종의 명으로 태조 이성계를 모시러 갔다가 죽임을 당한다. ⑧ 박효관·안민영이 편찬한 시조 및 가사집. ⑨ 조선 성종때 각 도의 지리·풍속 등의 사실을 기록한 책. 노사신 등이 편찬. ⑫ 가로열쇠 ⑬ 이 엮은 시조집. ⑭ 판소리 다섯마당의 하나로 삼국지와 관련있다. ⑰ 고려때 이승휴가 중국과 우리의 역사를 七言詩

로 읊은 글. ⑳ 제갈량의 軍술을 어겨 전쟁에서 참패, 제갈량이 올면서 목을 뱀다는 蜀漢의 장수. ㉑ 이제현이 지은 수필집. ㉒ 詩經이고대중국의 북방문학을 대표한다면 이것은 남방문학을 대표한다. 屈原의 작품이 유명하다.

세로열쇠

② 성악설 ④ 양귀비와 唐玄宗의 사랑과 한을 그린 백낙천의 서사시. ⑤ 열하일기 ⑥ 이중환이 지은

우리나라 지리지 ⑦ 조선 세종때에서 인조때까지의 諸家의 저술 가운데 53종을 추려 편찬한 야사집 ⑩ 용비어천가에 없어 부를 수 있도록 작곡된 가락.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뜻. ⑪ 박효관·안민영 등 평민 歌客이 모여 조직한 시조단체. 영조때의 경정산가단과 대비된다. ⑬ 이별의 정서를 읊은 고려속요. ⑭ 조선 정조때 이승훈의 세례를 받고 초기가톨릭의 지도자가 됐다. 아버지가 그의 선교를 말리다 목매어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⑳			㉑				㉒

죽자 후에 背教한다. ⑮ 이규보가 지은 詩話雜記. ⑯ 관우가 타고 다녔다는 말 ⑳ 수로부인과 관계있는 신라향가. 구지가와 비슷하다. ㉑ 易經의 띤 이름.

제52호 독서퀴즈 정답

「독서퀴즈」에 응답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52호(12월5일자) 퀴즈에 응답해온 엽서는 모두 107통, 이중 정답자는 93통이었습니다.

당첨자 중 서울에 계신 분은 도장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발표일로부터 한달 이내에 「출판저널」 편집실로 직접 오셔서 상품을 받아가십시오. 지방에 계신 분께는 우송해드립니다.

1. ①李奎報 2. ②杜甫 3. ②밀턴의 「失樂園」 4. ③E. A. 포

당첨자

이재희(서울 성북구 성북1동 170-14)
정명희(인천시 북구 부평5동 492-14 30/2)
조희재(대전시 중구 용두1동 3-5 03/3)
양상배(서귀포시 서귀동 251-1 1)
오인엽(광주시 동구 지산동 223-31 지산아파트 1-205)